불교국가들, 부산불교계에 감사 인사

티베트 보건협회 등 코로나 지원 감사장

부산불교계 불교 국가에 지원
국경없는민들레 · 홍법사 등에
영상 · 편지들 통해 감사 표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정토마을 국경없는민들레의 의료구호물품을 들고 있는 네팔 수나빠띠 사람들의 모습.

부산불교계의 코로나 극복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가 연이어 답도하고 있다.

티베트 보건협회, 스리랑카 대사관, 네팔 수나빠띠 자선병원 등은 8월 27일 정토마을(이사장 능행) 국경없는민들레에 영상과 사진을 통해 감사인사를 전달했다.

이번 해외국가들의 감사장 전달은 국경없는민들레의 해외 코로나 극복 지원 활동의 결과다.

국경없는민들레는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2주에 걸쳐 '코로나19 산소긴급모금' 을 진행했고 1억 246만원을 모금해 네팔 수나빠띠를 비롯해 티베트,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의료물품과 자금을 후원했다.

총 1300여 후원자들이 힘을 모아 네팔 3521만 8000원, 티베트 338만원, 스리랑카 3530만원, 인도네시아 841만 5000원, 필리핀 1500만원 등 후원금을 전달했다. 966만 7000원은 하반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티베트 보건협회는 감사영상에서 "인도서 망명 중인 티베트인들과 사원 그리고 학교, 병원 등 방역을 위해 지원받은 기금을 활용했다"며 "국경없는민들레에 깊이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스리랑카 대사관도 "국경없는민들레의 자비나눔과 박애정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감사장을 통해 마음을 전달했다. 스리랑카는 후원금으로 빈곤층 식량과 지역병원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실린더 구입 등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지역민들도 이날 영상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경없는민들레는 "생명을 사랑하는 불자들의 동참이 자비의 씨앗이 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됐다"며 "자비나눔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정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없는민들레 외에도 부산불교계의 코로나 극복 지원에 대한 감사 또한 이어졌다. 몽골 우부르항가이도는 8월 24일 홍법사(주지 심산)에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홍법사는 지난 5월 마스크 22만장을 몽골에 전달한 바 있으며, 1차로 12만장이 몽골 우부르항가이도 지역에 전달됐다.

우부르항가이도 측은 "전달된 마스크는 우부르항가이도청, 관세청, 병원, 사원 등에서 활용됐다"며 "홍법사를 비롯한 부산 불교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홍법사는 "코로나로 인해 현지에 물품을 배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금이라도 도착해 너무나 다행이며 나머지 10만장도 원만히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자비나눔을 실천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나눔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티베트 다람살라 망명정부도 7월 29일 부산 관음사(회주 지현)에 감사편지를 전달했다.

관음사는 7월 코로나 방역지원금 1000만원(64만 7079루피)을 인도 티베트 망명정부에 전달했다.

팔덴 돈덥 다람살라 망명정부 보건부장관은 "인도에 있는 많은 티베트인들을 대신해 관음사의 자비로운 기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경없는민들레가 지원한 네팔 수나빠띠 지역은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산간오지로 의료시설은 자선병원 하나 밖에 없다. 병원 입원환자들은 바닥에 누워 진료를 받고 위급환자들이 목숨을 잃어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병원 이사장 발덴 스님은 5월 국경없는민들레에 산소발생기를 긴급 요청했다.

인도정부 관계자, 통도사 참배

방장 성파 스님 "한국-인도 세계평화 기여" 당부


리바 강굴리 다스 인도 외무부 동아시아 차관과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등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8월 31일 통도사에 방문했다.

리바 강굴리 다스 인도 외무부 동아시아 차관과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등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8월 31일 통도사(주지 현문)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인도부처님 봉불식으로 시작한 한-인 국제불교문화교류를 이어가고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함이다.

통도사에 도착한 인도정부 일행은 통도사 경내를 돌아보고 방장 성파 스님을 친견했다. 이어 인도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는 국제템플스테이관 청풍관을 방문해 참배했다.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은 "인도는 우리 불자들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다. 불교의 가르침이 인도에서도 존중받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한국과 인도는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바 강굴리 다스 인도 외무부 동아시아 차관은 "한국의 유서 깊은 사찰 통도사를 방문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인도 부처님 봉안을 계기로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인도와 한국 간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통도사 방문에는 리바 강굴리 다스 인도 외무부 동아시아 차관과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디네쉬 K. 파드나익 인도문화교류위원회 사무총장, 소누 트리베디 주한인도문화원장 등이 함께 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도불교사암聯 기부 물품 전달

청도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행)는 8월 2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에 매진하고 있는 공무원과 방역 관계자를 격려하고자 청도군 예방센터를 방문해 생수 5000병 등 20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청도군(군수 이승율)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청도불교사암연합회장 지행 스님과 소속 회원 스님들이 참석했다.

지행 스님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 있는 공무원과 방역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물품을 기부하게 됐다"면서 "평온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전 불자가 합심해 발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청도불교사암연합회에서 소중한 기부물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기부물품은 예방접종센터와 각종 방역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관계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도 스님 49재 엄수

8월24일 정각원에서
전 재산 대학에 기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8월 24일 교내 정각원에서 선도 스님 49재를 엄수했다. 선도 스님은 생전 학교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장학금을 기부해 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8월 2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 '선도 스님 49재' 를 봉행했다. 선도 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고액 기부자이자 선도장학회 이사장으로 지난 7월 7일 세수 106세로 입적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선도 스님 입적 후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과 박종구 대외협력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장례와 49재를 봉행했다. 지난 8월 24일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문도 스님들과 최소한의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막재를 봉행하며 스님과 회향 약속을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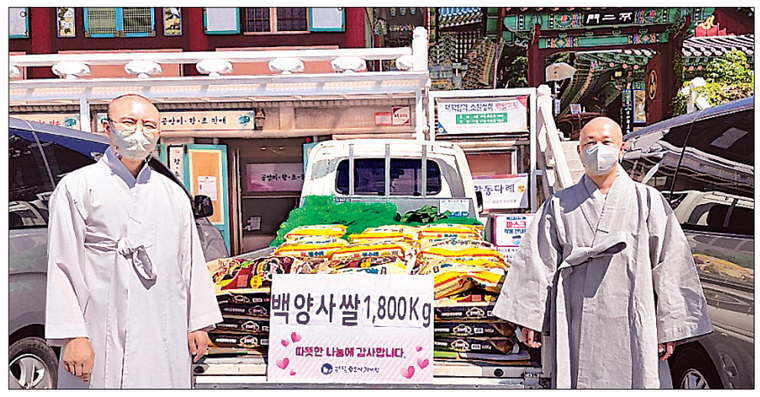
박종구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처장은 "선도 스님은 100세라는 고령에도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었다며 전 재산을 장학금과 학교 기금으로 희사하셨다. 스님의 사연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했고, 그 뜻에 동참해서 우리 대학에 기금을 내신 분들도 많았다"며 "학교는 스님과의 회향 약속을 지켜 장례와 49재를 봉행했다. 아름다운 회향을 하게 된 스님과의 인연에 감사드리며 선도스님의 큰 뜻이 많은 기부자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도 스님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태어나 "나라 없는 서러움과 못다 이룬 학업의 아쉬움을 인재 불사로 회향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지난 2002년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선도장학회를 설립해 학생들을 후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15년 스님의 100세를 맞아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 학생증을 수여하고 스님의 입적 시 장례와 49재 회향을 학교에서 모시기로 약속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백양사 '자비의 쌀'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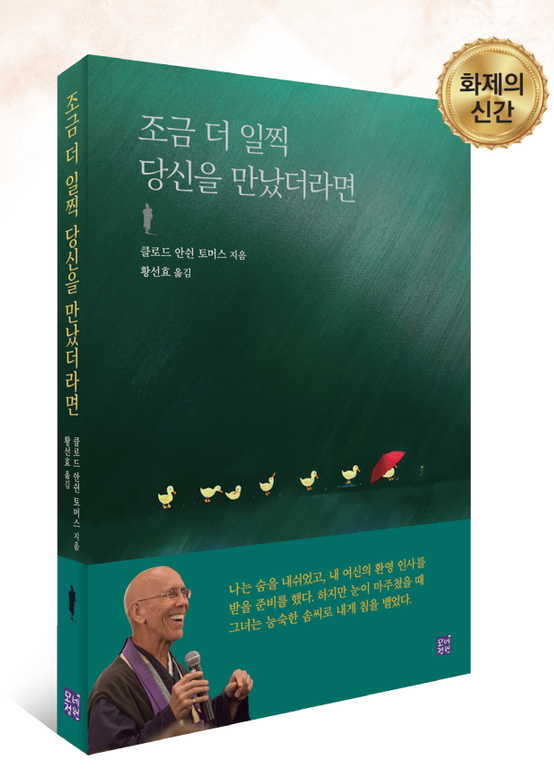
울산 백양사가 8월 26일 통도사자비원에 백미 1800kg (140포)를 전달했다.

8월 26일 통도사자비원에

울산 백양사(주지 산옹)는 8월 26일 통도사자비원에 백미 1800kg(140포)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쌀은 백중 기간 동안 불자들이 기도하며 올린 보시금으로 마련됐으며 쌀은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산하시설인 양로원, 요양원, 전문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백양사 주지 산옹 스님은 "백중기도를 회향하며 불자들의 기도비로 마련한 쌀을 자비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보시하기로 했다"며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돼 큰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 도움을 준 신도들과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